

디커플링 해소와 외국인의 선택 [4월 주식시장 전망]

Strategist 오승훈 769-3803 oshoon99@daishin.com

[4월 주식시장 전망 : 코스피 밴드 1,930~2,050]

4월 전반부는 한국증시 디커플링이 완화되면서 주가 상승 기초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은 4월 둘째주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결합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4월 1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시작으로, 둘째주에는 추경규모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대책, 금리인하 조합이 완성될 경우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 시각도 교정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의 정책 모멘텀 만으로 직전 고점인 2,050선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증시의 디커플링은 내부의 정책요인과 더불어 일본과의 경쟁심화라는 구조적 요인을 품고 있다. 1분기 어닝시즌으로 한국과 일본기업의 명암은 더 뚜렷해 질 수 있다.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의 실적은 1분기에도 환율 효과가 더 크게 반영되면서 한국의 이익 모멘텀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내부의 정책기대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공격적인 매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외국인이 가세하지 않는 한 국내의 수급 여건으로 2,050선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월 중순 2,050선 전후에서 주가 반락을 염두해 둔 방어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업종전략]

어닝시즌에서의 업종 선택 : 반도체, 유틸리티, 유통, 에너지

이익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업종은 반도체와 유틸리티, 유통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이익전망 상황이 주가에 덜 반영된 대표적인 업종으로 볼 수 있다. 낙폭과대 경기민감주 중에서는 이익하향 대비 주가 하락폭이 더 컸고 최근 이익전망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업종이 유망해 보인다.

경기부양책에 따른 업종 선택 : 금융, 제약

한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 4월 둘째주까지 극대화

한국증시 디커플링 원인이 되었던 내부요인인 정책강도는 4월초부터 발표될 경기부양책(부동산 대책 + 추가경정예산 편성 + 통화정책)에 의해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 눌러있던 정책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 시각도 교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2013년 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일 실행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4월에는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부동산시장 대책, 추경 편성, 중소기업/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5월에는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 제시되고 정부기술 활용, 연구개발 활성화를 담은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창조형 서비스업종(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활성화 방안도 5월에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는 4월 둘째주까지 극대화 될 전망이다. 4월 1일 부동산 시장안정화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둘째주에는 추경규모가 확정됨과 동시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월 둘째주까지의 조치(부동산, 추경, 한은의 통화정책)를 통해 정부 정책 강도와 효과에 대한 시장의 판단도 방향이 잡히게 될 것이다.

*정책에 대한 기대수준과 판단

4월 중순 이후에는 정책에 대한 효과로 관심이 이동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기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중요하다. 이미 주식시장은 4월초 발표될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기대를 뛰어넘는 대책을 통해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4월 중순 이후 시장은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디커플링이 재현될 수도 있다.

[표1]은 4월 발표될 정부의 정책패키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기대수준은 언론을 통해 언급되거나 해당 부처 장관의 발언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제 폐지, DTI/LTV완화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추경 편성에서는 세입결손보전(12조원 예상)을 제외한 세출증가분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다. 시장은 기대치는 10조원 정도로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4월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이미 높아져 있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는 국회에서의 합의 과정이라는 변수를 만나게 된다. 추경 편성과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은 모두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집행 속도가 느려지는 마찰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1. 4월 추진되는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

시기	대책	기대수준	서프라이즈 & 실망
4월 첫째주	부동산 대책 (4.1일) (부동산시장 정상화)	규제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생애첫주택구매자 취득등록세 면제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대출이자 인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국민행복주택) 전세자금 지원 강화(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 및 요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적용) 다주택주 양도세 증과제 폐지 미분양 주택/신축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완화
4월 둘째주	추경 편성	12조원(세입결손보전) + 10조원(세출증액)	세출증액 규모 크기가 결정
	SOC투자 1조	SOC분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1조원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인하	금리동결시 실망
4월 중	금융지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정책금융 상반기 조기집행	
	수출지원 확대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수출 활성화 방안(무역투자진흥회의)	
	물가안정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등 합리적인 원가검증체계 구축	
4월 말	재정개혁	재정개혁위원회 통해 연도별/분야별 구체적 세출구조조정 방안 마련(4월말)	
	공약 실천 계획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약속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등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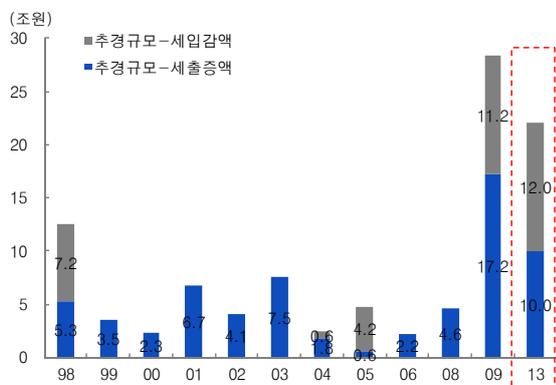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표 2. 2008년 이후 추경 및 재정지출 확대 사례와 투자 분야

	2008년 추경		2009년 수정예산		2009년 추경		2013년 추경
편성 시기	2008.6월		2008.11		2008.3		2008.4
국회통과시기	2008.9월		2008.12.31		2008.4		
규모	4.6		10.7		28.4		12.0+ α
세출증액	4.6		10.7		17.2		α (기대치 10)
세입결손보전	-				11.2		12
지역경제 활성화	1.0	SOC투자	4.6	SOC투자	3.5	지역경제활성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1.3	유가환급금 등	1.0		4.1	저소득층 생활안정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0.4	농어민지원	3.4	농어민, 기타	4.5	중소/수출기업/자영업	
고용유지 및 취업			0.3		2.8	고용유지 / 취업확대	
기타			1.1		2.3	미래대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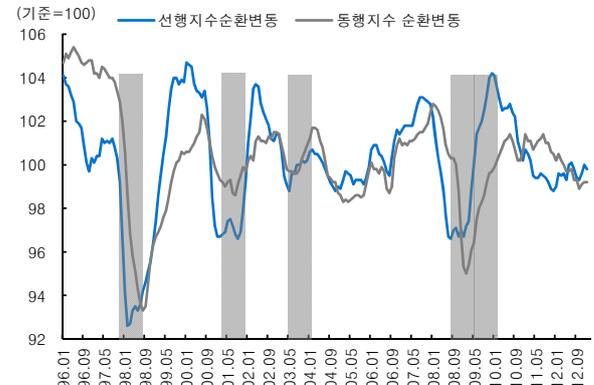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추경이 편성된 시점은 대부분 경기 침체이거나 하강기



자료: 기획재정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대규모 추경은 경기침체가 심각했던 시점에 집행



자료: BEA,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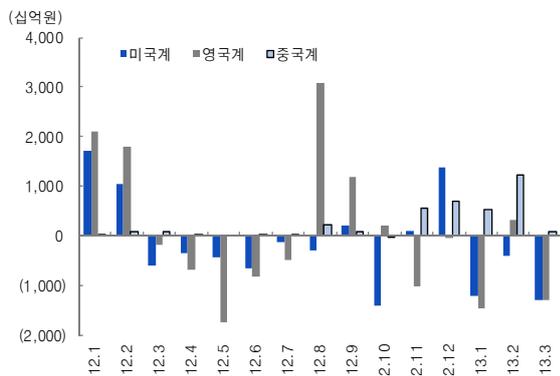
4월 외국인, 추세적인 복귀는 쉽지 않다

*3월 외국인 매매패턴 : 구조적 변화 (한국의 상대적 매력 하락)

3월 외국인은 2조5천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매도 특징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적별로는 미국계와 영국계 자금의 매도가 두드러졌다. 3월26일까지 언론의 가집계를 보면 미국계가 1조3천억, 영국계가 1조3천억을 순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2월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던 중국계 자금의 순매수도 3월 크게 둔화되었다[그림3]. 시기를 구분해보면 3월 중반까지는 미국계가 매도를 주도한 반면, 키프로스 사태 영향으로 3월말에는 영국계 자금의 매도가 집중되었다[그림4, 3월21일과 3월27일 국적별 순매도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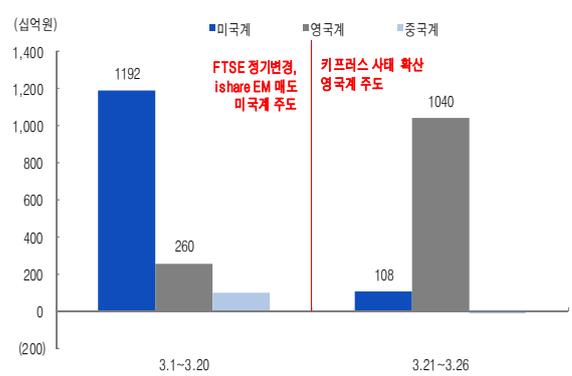
매매채널별로는 비차익과 비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2월과 달리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대규모로 출회되었다[그림5].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1~2월 벵가드 지수 변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 바 있다. 3월 비차익 매도는 미국계 중 대체 매수세로 여겨지는 블랙락 iShare EM 펀드의 한국물 비중 축소 때문으로 판단한다. [그림6]에서 보듯이 블랙락 iShare EM 펀드는 3월중 한국 주식에 대해 일관된 매도를 보였다.

그림 3. 3월 외국인 매도 : 미국계, 영국계 동시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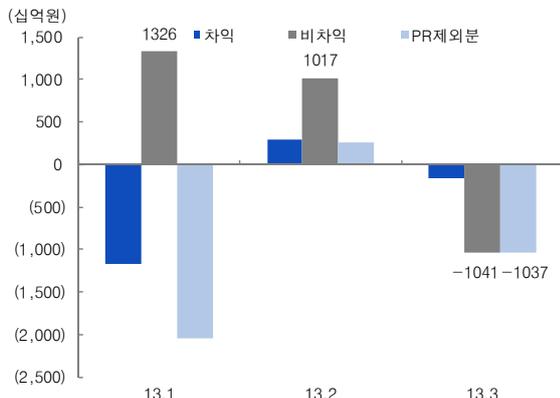
주: 3월은 3월26일까지의 언론보도에 근거
자료: 금융감독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3월 중반까지 미국계 주도, 3월후반 영국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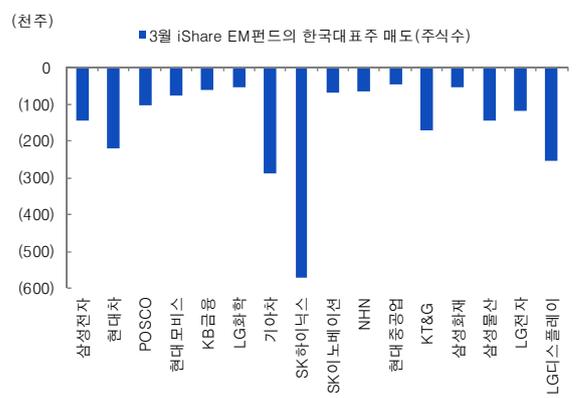
주: 3.21일, 3.27일 국적별 외국인순매수 보도를 근거로 재구성
자료: 금융감독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3월 외국인 채널별 매도 : 비차익, 비프로그램 매도 주도



주: 3월은 3월26일까지의 언론보도에 근거
자료: KRX,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비차익 매도 확대: iShare EM 펀드 한국 비중 축소



주: 3.21일, 3.27일 국적별 외국인순매수 보도를 근거로 재구성
자료: iShar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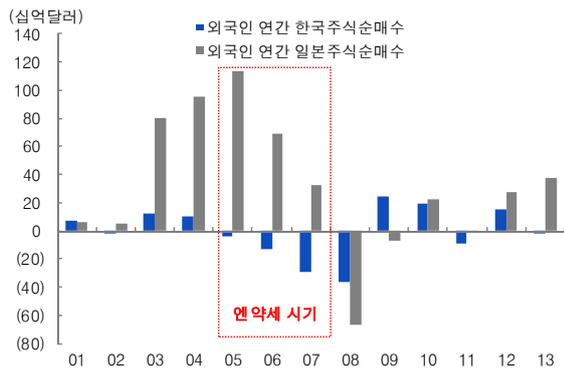
***4월 외국인 매매 전망 : 외국인 매수 전환**

4월초 상대적으로 높여있던 한국 정책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 시각도 교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계 증권사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우호적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일본주식을 적극적으로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3월말 엔약세가 주춤해지면서 차익매물을 내놓고 있는 점도 한국의 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근본적인 시각이 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연초 이후 3월까지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18억달러 순매도 한 반면, 일본주식은 370억달러를 순매수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는 공격적인 경기부양, 엔약세에 기반한 일본기업의 부활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고점인 2,050선을 돌파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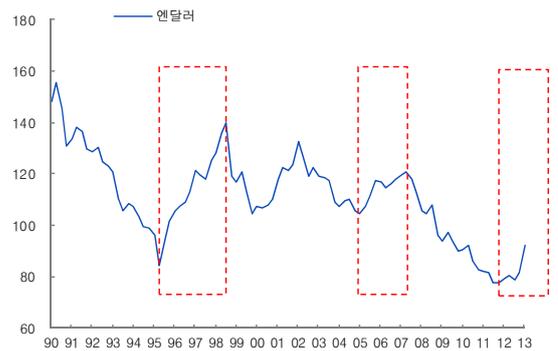
[그림7]은 2001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순매수를 달러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엔약세 시기인 2005년~2007년까지 외국인은 연초 이후 흐름처럼 한국보다 일본주식에 대한 선호를 높인 바 있다. 물론 공격적인 일본의 조치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참의원 선거가 예정된 7월까지 일본은 공격적인 부양을 더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일본 대비 한국주식의 매력이 부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림 7. 일본과 한국에 대한 외국인 시각 :2005~2007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2005~2007년의 특징 : 엔약세 시기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시각 :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게 될 것

4월 어닝시즌은 외국인의 매매패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외국인은 일본과 한국 기업들의 성과에 따라 기존 Buy Japan, Sell Korea를 더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포지션에 변화를 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기부양책에 의해 개선된 외국인의 시각이 더 가속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한국기업의 매력에 부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의 경쟁환경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1분기, 2분기 일본기업과의 경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엔약세가 시작된 2012년 4분기부터 일본기업의 실적 개선이 가속되고 있다. 2009년 이후 4년간의 추세적인 엔고국면에서 일본 기업은 원가절감, 기술혁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적응력을 높여온 바 있다. 여기에 엔화약세가 가속되면서 기업수익의 턴어라운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분기에 시작된 수익성 개선은 1분기에 더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환율 효과가 4분기 대비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이다[그림9]. 과거 엔약세가 진행된 2005년~2007년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수출 대표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시차를 두고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10].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의 실적은 1분기에 환율 효과가 더 크게 반영되면서 한국의 이익 모멘텀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일본의 양적완화, 경기부양정책의 글로벌 산업 영향이 검증되는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 상반기까지는 한국보다 일본 기업의 부활에 외국인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9. 한국의 외국인 매도 : 2013년 2.5억달러 누적순매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일본기업의 엔약세 효과 : 영업이익률 개선 예상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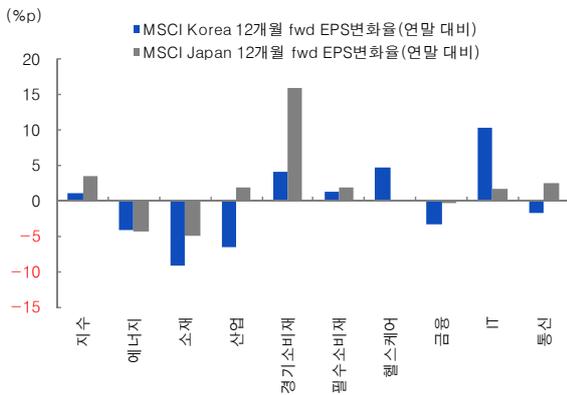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의 이익모멘텀 : 한국 상대적 열위

[그림11]은 1년전 MSCI 섹터 기준 한국과 일본의 12개월 Fwd EPS 전망치의 3개월 전 대비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과 한국 기업의 전망치 변화는 글로벌 경기(중국, 유럽) 위축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섹터별 이익전망치 변화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중국 및 유럽 경기둔화를 반영하여 에너지, 소재, 산업재의 이익하향이 진행되었고 경기소비재(자동차)와 IT의 이익상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과 한국 기업의 이익전망치는 엔약세 효과가 반영되면서 급격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12]는 3월22일 기준으로 연말대비 이익전망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모든 업종(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IT)에서 일본 기업의 이익전망은 상향되었다. MSCI Japan의 12개월 EPS증가율은 연말대비 15% 가량 상향조정되었으며 경기소비재의 경우 30%가 넘는 이익상향 조정이 있었고, 에너지, 소재업종도 20%가 넘는 이익상향 조정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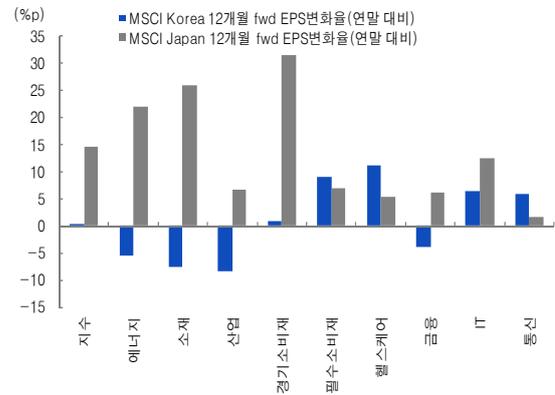
반면 한국의 경우 수출주 가운데 IT만 유일하게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내수(필수소비재, 헬스케어)업종의 이익전망치 상향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내수/서비스 업종이 엔약세 국면의 상대적 대안으로 부각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익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IT업종은 엔약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주가 측면에서도 엔약세의 부정적 환경 때문에 이익 개선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분기 이익전망 상향, 갤럭시 S4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이익의 반영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11. 1년전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치 변화



주: 기준일자 2012년 3월 29일
자료: IBES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현재, 일본과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치 변화



주: 기준일자 2013년 3월 29일
자료: IBES,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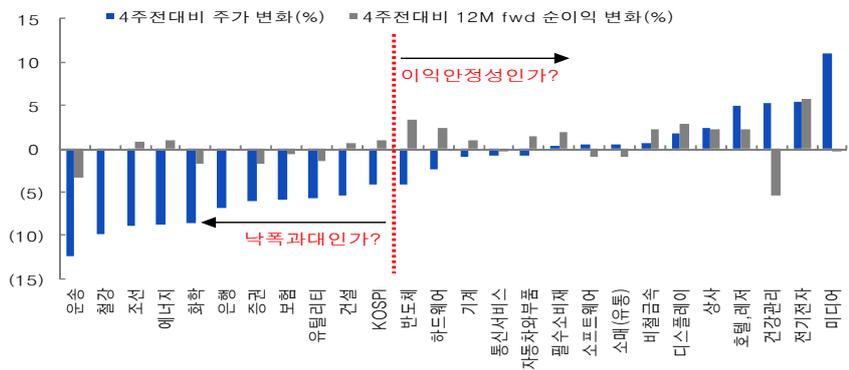
4월 어닝시즌의 판단기준 : 이익안정성 vs 낙폭과대

*이익안정성(삼성전자, 자동차, 내수소비재) vs 역발상(소재, 산업재)

이익의 안정성에 집중할 것인가? 역발상 관점에서 이익이 하향중인 낙폭과대주를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림13]는 4주전대비 순이익변화와 주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소재, 산업재는 대표적인 낙폭과대 업종이지만 이익에 대한 확신이 아직 약하다. 반면 IT, 자동차, 내수/서비스 업종은 이익안정성에 기반해 견조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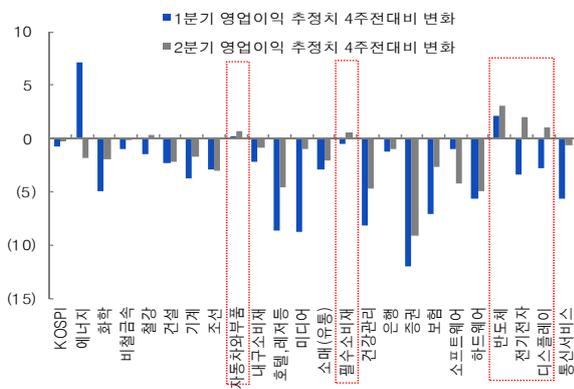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4월 어닝시즌에서 이익안정성에 초점을 둔 업종 선택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시장전망 측면에서 4월의 주가 반등이 새로운 추세 시작이기 보다 이전과 같이 2,050선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2012년 3~4월 어닝시즌과 유사하다. 중국 경기상황은 회복을 넘어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대했던 재고의 선순환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그림15]. 유럽의 경우 아직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이탈리아 정치리스크가 부각된다면 다시 불확실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어닝 시즌의 판단기준 : 낙폭과대 vs 이익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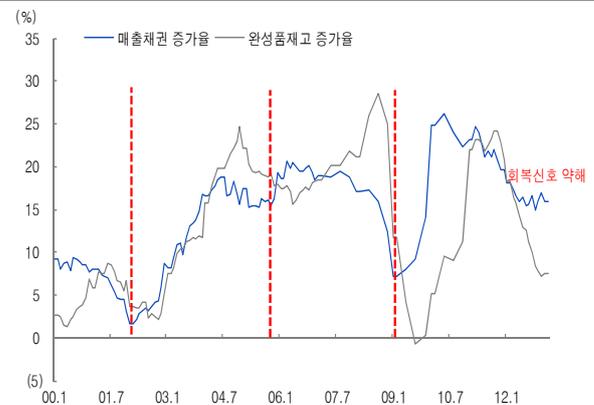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1,2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 상황 - IT, 자동차, 필수소비재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중국의 회복은 예상보다 더디: 재고반전 지연



자료: CEIC,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소재, 산업재에 대한 시각

기대가 낮아져 있는 점은 긍정적

1월 어닝시즌과 달리 4월 어닝시즌을 앞둔 소재, 산업재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낮아져 있다. [그림16]와 [그림17]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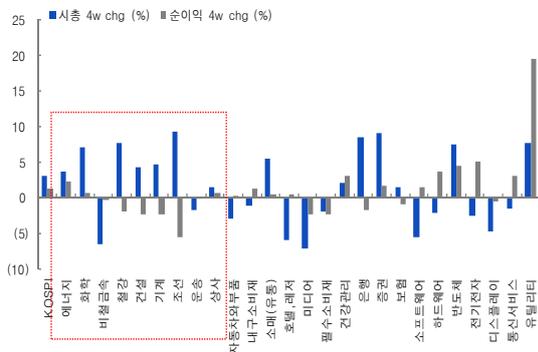
[그림16] 1월 어닝시즌 직전인인 2012년 12월 28일 기준 직전 4주간 주가와 이익추정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월 어닝시즌을 앞두고 소재산업재의 주가는 중국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크게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어닝시즌에 진입한 이후에는 어닝쇼크가 발생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

[그림17]은 3월 28일 기준 업종별 4주간 이익과 주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4주간 소재, 산업재의 주가는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4주간 이익하향 속도도 크게 완화되었다.

중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시기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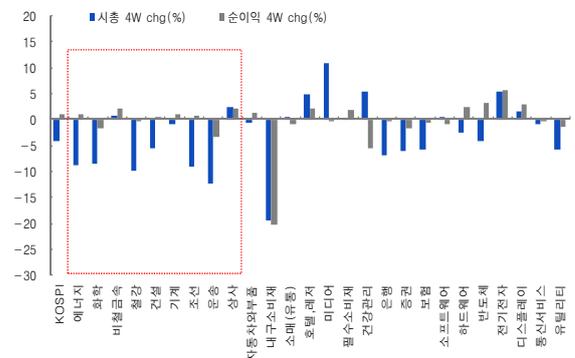
1월과 달라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재, 산업재에 대한 추세적 접근은 시기상조로 판단한다. 1월 어닝시즌에 대한 기억(어닝 쇼크)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재, 산업재의 경우 '싸다'라는 인식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 변화가 필요하다. 미래의 전망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중국이다. [그림15]은 중국 공업기업(제조업)의 완성품재고 증가율, 매출채권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매출채권 증가율은 완성품재고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이후 중국 재고 사이클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속되어 왔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하락세가 멈추었지만 과거와 같은 빠른 재고의 반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경기회복을 넘어 확장으로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6.업종별 4주간 가격과 이익추정치 변화(2012.12.30일 당시)



자료: Wic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업종별 4주간 가격과 이익추정치 변화(현재)



자료: Wic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4월 업종전략 : 어닝시즌과 정책수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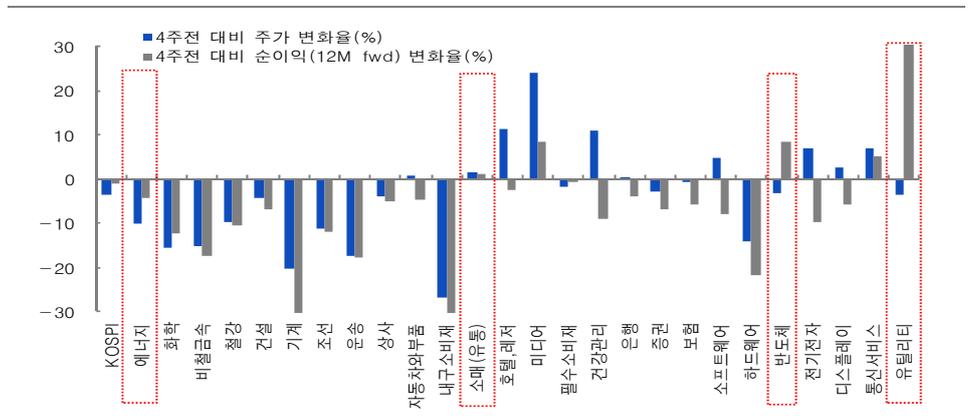
*어닝시즌에서의 업종 선택 : 반도체, 유틸리티, 유통, 에너지

4월 업종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제 1의 고려요소는 어닝시즌이 될 것이다. 이익안정성과 낙폭과대 컨셉 중 이익안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익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업종은 반도체와 유틸리티, 유통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이익전망 상황이 주가에 덜 반영된 대표적인 업종으로 볼 수 있다[그림18].

낙폭과대 경기민감주 중에서는 이익하향 대비 주가 하락폭이 더 컸고 최근 이익전망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업종이 유망해 보인다.

그림 18. 4월 업종 선택 : 반도체, 유틸리티, 소매(유통), 에너지



자료: Wses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경기부양책과 업종 선택 - 금융, 제약

4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추경편성, 금리결정등 경기부양책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은 4월둘째주 정부안이 확정 발표된 후 의회 합의 과정이 진행될 거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11번의 추경 국면(추경 발표 전후 10일 수익률)의 평균수익률과 hit ratio(시장대비 초과수익 확률)를 살펴보면 금융, 제약이 수익률이 좋았다[표3]. 추경 이후에는 5월 경기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정부기술 활용, 연구개발 활성화를 담은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4월말부터는 창조형 서비스업종(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000년 이후 11번의 추경사례, 업종별 수익률, hit ratio(초과상승 확률)

	추경 정부발표 전 10일 수익률		추경 정부발표 후 10일 수익률	
	Hit ratio(%)	평균수익률(%)	Hit ratio(%)	평균수익률(%)
종합주가지수		1.9		2.3
음식료품	72.7	3.2	45.5	2.2
금융업	72.7	4.0	72.7	3.8
보험	72.7	3.4	36.4	2.1
의약품	63.6	2.7	63.6	3.6
은행	63.6	4.2	72.7	4.5
섬유,의복	54.5	2.5	54.5	2.9
철강및금속	54.5	1.9	54.5	3.1
기계	54.5	3.8	54.5	4.7
의료정밀	54.5	2.3	54.5	2.5
운수창고	54.5	2.7	63.6	5.0
증권	54.5	3.1	36.4	5.3
종이,목재	45.5	1.6	63.6	3.1
비금속광물	45.5	2.7	45.5	2.8
전기,전자	45.5	2.2	54.5	2.7
코스닥	36.4	1.8	45.5	0.8
화학	36.4	1.5	36.4	1.8
운수장비	36.4	1.9	54.5	2.5
유통업	36.4	0.9	54.5	3.3
건설업	36.4	1.8	45.5	0.7
통신업	27.3	-0.1	27.3	0.7
전기가스업	18.2	0.3	45.5	0.6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